

2024년 부산 제조업 경기전망

- 2024년 1/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

2023. 12.



< 조사개요 >

1. 조사명

- 2024년 1/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2. 조사목적

-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
-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

3. 조사대상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유효 응답 업체 250개체)

4. 조사방법

-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5. 조사내용

- 전반적인 체감 경기
- 매출,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
- 주요 업종별 전망

6. 주의사항

-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7. 기업경기전망지수(BSI)의 의미

$$BSI = \frac{\text{호전(증가)표시업체수} - \text{악화(감소)표시업체수}}{\text{총 유효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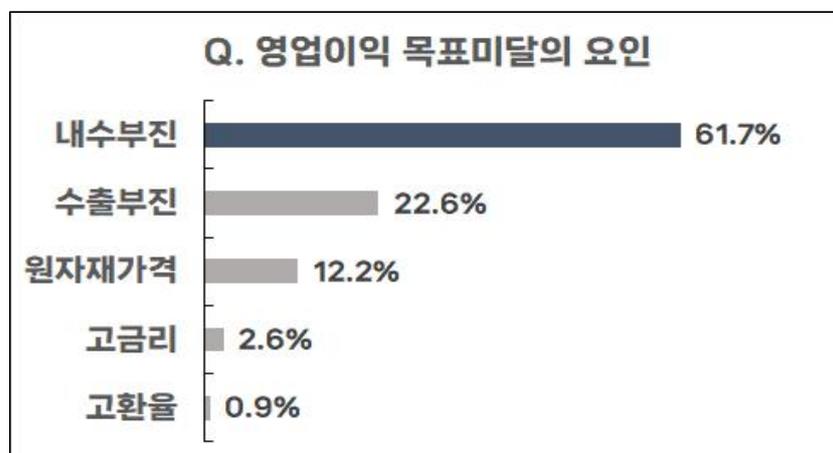
※ BSI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

1 영업이익

- 올 한해 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가격 정상화 및 수출회복 등 실적개선 가시성이 커지면서 목표달성을 전망한 기업이 53.8%를 기록
 - 한편, 영업이익 초과달성은 0.4%에 그쳤으며, 영업이익 목표미달은 45.8%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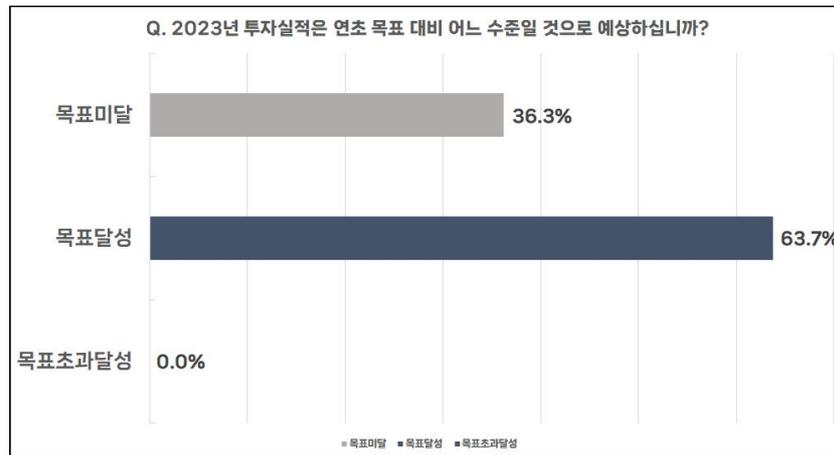
- 영업이익 목표미달의 요인으로 내수부진(61.7%), 수출부진(22.6%), 원자재가격(12.2%)과 고금리(2.6%) 등을 꼽으면서 대내외 소비위축에 따른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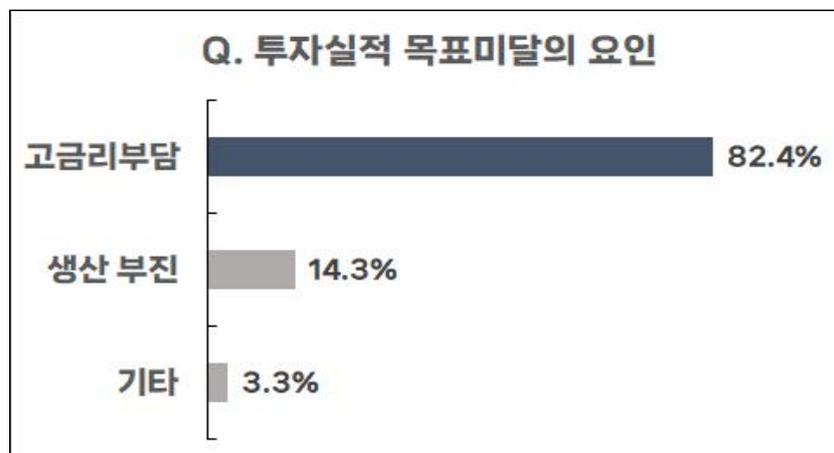
2 투자실적

○ 지역기업 절반 이상(63.7%)이 올 해 투자실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다만, 투자목표 초과달성을 전망하는 기업은 전무하며, 투자실적 목표미달을 전망한 기업은 36.3%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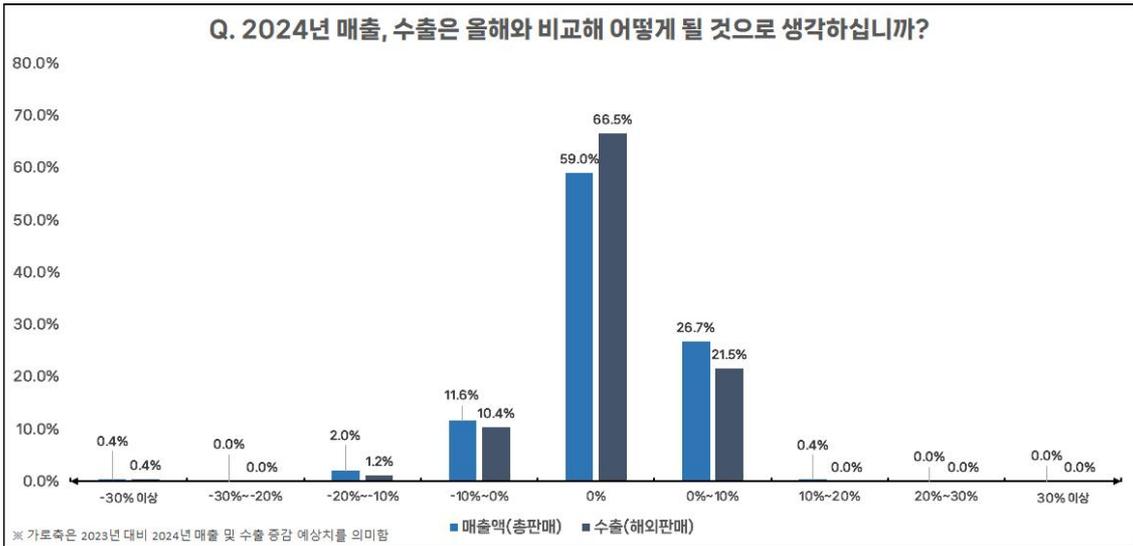
- 투자실적 목표미달의 요인으로 고금리부담(82.4%)이 가장 많이 꼽히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자금조달 부담 등이 올 한해 지역 제조업의 투자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II 2024년도 경영전망

1 매출·수출 실적

- 지역 제조기업은 2024년도 매출·수출실적을 금년수준으로 전망
 - 매출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실적감소를 전망하는 기업의 2배 이상 기록하면서 내년도 대내외 수요회복 기대와 이에 따른 실적개선 기대감을 보임
 - 다만, 내년도 매출실적이 올해와 비교해 동일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절반 이상(59.0%)을 차지하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출실적 또한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우세한 가운데, 수출실적 성장 기대가 수출부진 전망 대비 2배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물가상승률 둔화, 에너지가격 안정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을 보임



2 경영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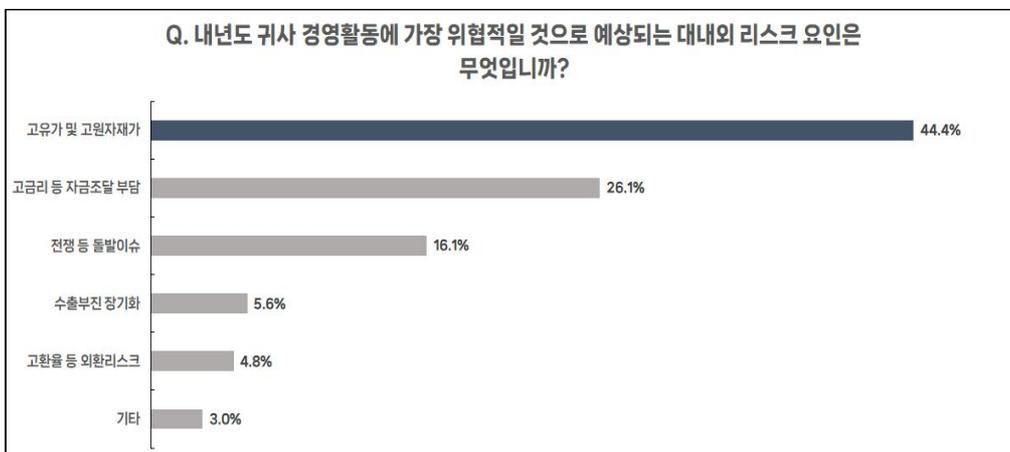
- 내년 기본 경영전략을 안정화 전략으로 택한 기업이 절반 이상 (68.1%)으로 나타남

- 이는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가 정책변화에 따라 단기간 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 대외환경 급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한편, 성장 전략은 30.3%를 차지하면서 내년도 글로벌 수출증가와 내수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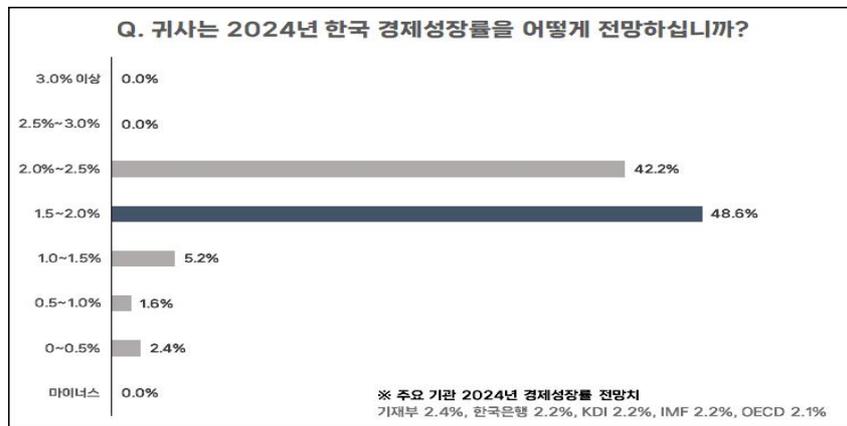
3 경영환경 및 성장치 예측

- 2024년도 경영활동에 위협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44.4%)가 가장 많이 꼽힘
- 이외에도,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26.1%), 전쟁 등 돌발이슈(16.1%), 수출부진 장기화(5.6%)와 고환율 등 외환리스크(4.8%) 등을 꼽으면서 지정학적 위험요인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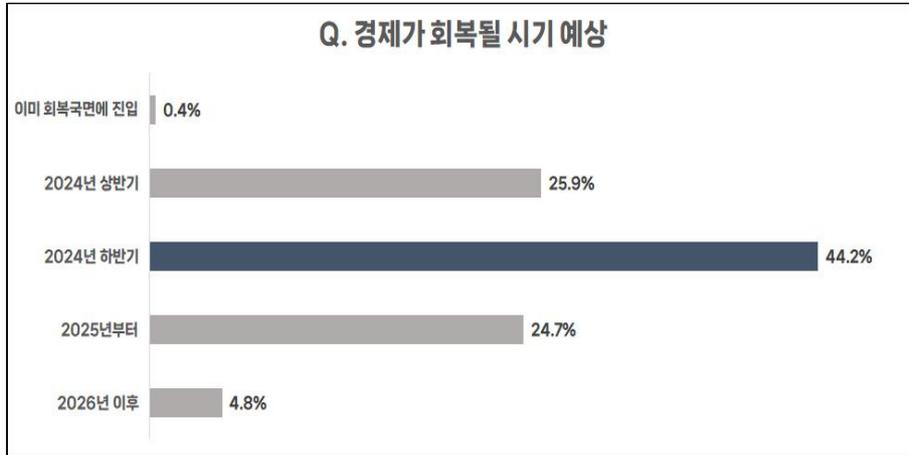
○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2024년도 경제성장률을 2.1%~2.4% 수준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지역기업 대부분(48.6%)은 1.5%~2.0% 수준으로 전망

-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체감하는 지역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입 회복기간 중·장기화 전망과 고물가 기조 지속에 따른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
- 한편, 2024년도 경제성장률을 2.0%~2.5%로 전망하는 지역기업 비중도 42.2%로 나타나면서, 실물경제 전반과 대내외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주요 기관들과 함께 지역 제조기업 또한 경기 연착륙 전망에 대한 공감대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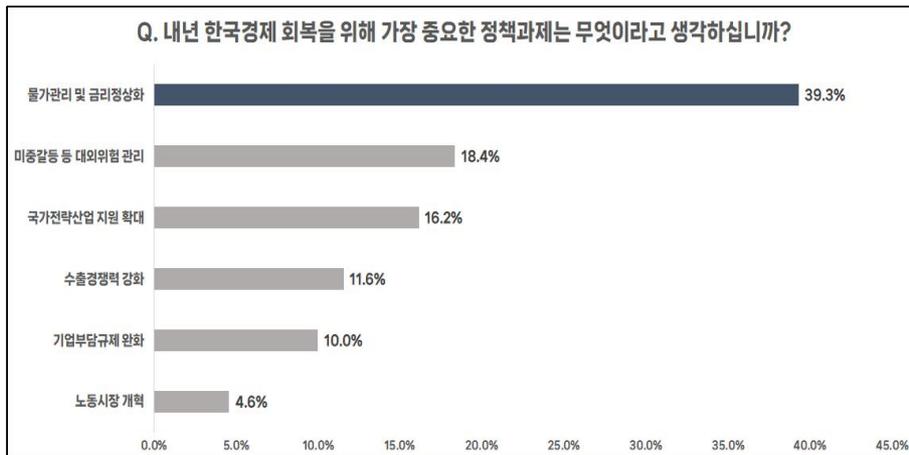
○ 지역기업 대부분은 우리나라 경제회복 시기를 내년 하반기 (44.2%)로 전망

- 또한, 내후년(24.7%), 2025년 이후(4.8%)를 꼽으면서 지역기업 대부분이 내년도 상저하고 전망에 따라 국내 수요위축 및 고금리 문제가 중장기에 걸쳐 해소될 것으로 전망
-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25.9%), 이미 회복국면에 진입(0.4%) 등의 전망도 존재



○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 정책과제로 물가관리 및 금리정상화 (39.3%)를 꼽음

- 이외에도 미중갈등 등 대외위험관리(18.4%), 국가전략산업 지원 확대(16.2%), 수출경쟁력 강화(11.6%), 기업부담규제 완화(10.0%), 노동시장 개혁(4.6%) 등을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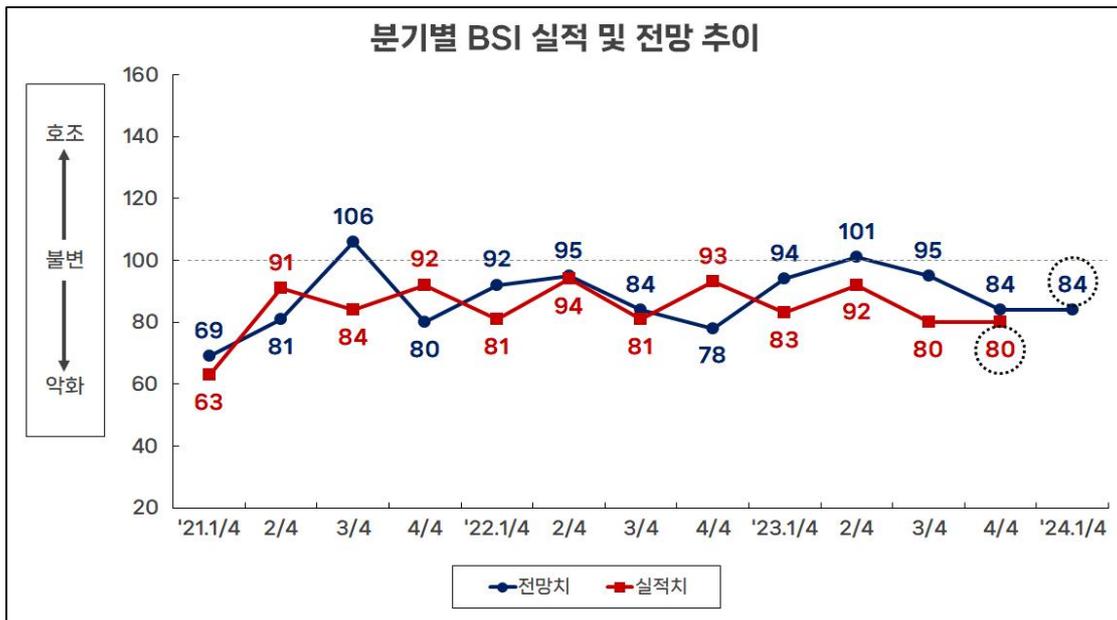


1 전반적 경기 전망

■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84**, 대외여건 불안요소 늘어나며 전분기대비 체감 경기 악화 전망

- 23년 4/4분기 ‘84’ → 24년 1/4분기 ‘84’ (전분기 대비 포함)
 - 러-우전쟁 및 중동분쟁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 증가와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 위축 전망 지속
 - 또한, 중국의 저성장 국면진입, 원자재가격 상승, 자금조달비용 증가 등에 따른 경영실적 전망 불투명
 - 반면, 환율 안정, 지역 기업의 수출 회복세 및 美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시사 등에 따른 내년 경기회복 기대 혼재

○ 2023년 4/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 ‘80’ (전분기 대비 포함)



○ 응답기업, 경기불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경기침체 불안감 존재 하면서 경기호전 전망 대비 경기악화 전망이 두 배 이상

- 직전분기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가 61.6%(154개사), 경기호전을 예상한 업체는 11.2%(28개사)인 가운데 경기악화를 예상한 업체가 27.2%(68개사)

< 2024년 1/4분기 경기전망 응답 분포 >

(단위: 개사, %)

구분	호전	불변	악화	계
응답업체 수	28	154	68	250
구성비	11.2	61.6	27.2	100.0

2 경영부문별 경기전망

■ 경영관련 전 부문에서 기준값 100 하회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부진 전망 지속

○ 매출(85)

- 수출을 중심으로 실적부진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나,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 대외환경 불안정과 추후 금리 인하시기 불투명에 따른 고금리부담 지속으로 매출 부진 전망

○ 영업이익(85)

- 재고자산 증가, 내수부진 지속,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영업이익 부진 전망

○ 설비투자(93)

- 자금조달비용 부담과 대내외 경기 불확실 등으로 인해 내년 1분기에도 설비투자 비중을 축소할 전망

○ 자금사정(92)

- 자금유동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전분기 대비 자금사정은 개선되었으나, 글로벌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유동성악화로 지역기업의 자금사정 부진 전망이 지속

< 부문별 BSI 변화 >

구분	실적		전망	
	'23.3/4분기	'23.4/4분기	'23.4/4분기	'24.1/4분기
체감경기	80 →	80	84 →	84
매출액	80 →	82	89 →	85
영업이익	80 →	81	90 →	85
설비투자	91 →	96	94 →	93
자금사정	87 →	93	89 →	92

3 주요업종별 경기전망

■ 대부분의 기업에서 내년 1분기에도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의 본격화로 업황 부진을 전망하는 반면, 수출회복 및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업황회복 기대도 상존

○ 음식료품(100)

- 식품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증가한 반면, 1인가구 증가 및 간편식 시장 확대 등으로 내식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업 실적개선 기대감 혼재

○ 섬유(73), 의복·모피(73), 신발(53)

- 재고적체 지속, 공급망 불안 및 글로벌 소비위축에 따른 원청기업의 공급량 조절 등으로 OEM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경기부진 전망 지속

○ 화학·고무(71)

- 화학·고무 업종은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 공급망 불안요인 상존과 고금리, 내수부진 등 전·후방산업 수요 감소에 따른 업황부진 전망

○ 1차금속(104)

- 에너지가격 정상화로 인한 매출실적 회복 기대와 조선수주 호황 및 완성차·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세 전환 등 대외수요 개선 기대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경기 호전 전망

○ 전기·전자(135)

- 중국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 상존하나, 반도체 및 전장 제품 수출 회복세에 따른 관련 제조업 업황 호전 기대

< 주요 업종별 BSI 변화 >

구분	실적		전망	
	'23.3/4분기	'23.4/4분기	'23.4/4분기	'24.1/4분기
음·식료품	80 →	87	73 →	100
섬유제품	50 →	47	81 →	73
의복·모피	94 →	33	75 →	73
신발제품	78 →	67	67 →	53
화학·고무	88 →	71	104 →	71
1차금속	68 →	60	48 →	104
조립금속	85 →	95	105 →	100
전기·전자	80 →	70	105 →	135
기계·장비	77 →	108	77 →	76
자동차·부품	87 →	97	93 →	93
조선·기자재	90 →	100	90 →	80